

## 『東醫寶鑑』 중 『脈訣』 引用에 대한 考察

<sup>1</sup>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과학교실 · <sup>2</sup>제한동의학술원  
<sup>3</sup>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sup>4</sup>원광대학교 한국전통의학연구소  
송지청<sup>1, 2</sup> · 엄동명<sup>3, 4</sup> \*

### A Study on *Maijue* Quotation in *Dongeuibogam*

Song Jichung<sup>1, 2</sup> · Eom Dongmyung<sup>3, 4</sup> \*

<sup>1</sup>Dept. of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sup>2</sup>Jehan Korean Medical Academy, Daegu Haany University

<sup>3</sup>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up>4</sup>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Objectives** : ‘Maijue’ is the one of the diverse quoted texts in *Dongeuibogam*. Maijue is mentioned 72 times. However, we don’t know what note of Maijue exactly indicates.

**Methods** : We derives 72 sentences, which is marked as Maijue for quotation in *Dongeuibogam*, and compared those sentences between *Dongeuibogam* and texts related to Maijue ; Cui Jiayan`s *Maijue*, *Chandobanglonmaekgyeoljipseong* and so on.

**Results** : 35 out of 72 sentences are from Cui Jiayan`s 『Maijue』, 28 from *Chandobanglonmaekgyeoljipseong*(17 from headings, 6 from contents related to Zhang Yuansu[張元素], 5 from contents related to Li Jiong[李綱]). The rest of those annot be found in texts mentioned above.

**Conclusions** : Maijue in *Dongeuibogam* as a quoting mark doesn’t indicate one book and *Dongeuibogam* used one single mark, ‘Maijue’ even though *Dongeuibogam* quoted several texts, which names were related to *Maijue*.

**Key Words** : *Maijue*, *Dongeuibogam*, *Chandobanglonmaekgyeoljipseong*, quotation

## I. 序 論

\* Corresponding Author : EOM, Dongmyung, 312 Prof. Graduate of Korean Medicine Building, Wonkwang University, 460 Iksandaero, Iksan City, Jeonbuk, ROK.  
E-mail: haksan@wku.ac.kr  
Tel: 063-850-6941 Fax: 063-842-4328  
접수일(2014년 11월02일), 수정일(2014년 11월20일), 게재확정일(2014년 11월20일).

『東醫寶鑑』은 종합의서로서 내용상 역대 의서들을 인용하여 서술되었고, 인용문장은 그 인용처가 기록되었다. 『脈訣』은 『東醫寶鑑』의 인용서 중 하나인데, 총 68회 인용되었다. 단 인용된 『脈訣』의 문장구성이 형식상 확연한 차이가 있어 동일서적에서 인용하였는지 여부와 『脈訣』 명칭의 서적이 다수 존재하므로 인용서 『脈訣』이 어떤 서적을 의미하는지

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에 『東醫寶鑑』에 인용된 『脈訣』의 연원을 밝혀보고자 한다.

『東醫寶鑑』 인용서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이<sup>1)</sup>의 연구와 문<sup>2)</sup>의 연구 등이 본인 연구와 유사하나 『脈訣』 인용서에 대한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 II. 本 論

### 1. 崔嘉彦 『脈訣』

『東醫寶鑑』에 인용된 『脈訣』 문장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崔嘉彦의 『脈訣』이다.

崔嘉彦은 南宋의 의학가이며 字는 希范으로 『脈訣』을 저술<sup>3)</sup>하였으며, 이 『脈訣』은 4言句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다.

『東醫寶鑑』에 인용된 『脈訣』 문장 중 「頭」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頭痛陽弦 浮風緊寒 風熱洪數 濕細而堅  
氣虛頭痛 雖弦必瀉 痰厥則滑 腎厥堅實<sup>脈訣</sup>

과 같은데, 이는 崔嘉彦 『脈訣』<sup>4)</sup>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東醫寶鑑』에는 崔嘉彦의 『脈訣』이 총 35회 인용되었으며, 몇 개의 글자를 바꾸어 인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대로 인용되었다. 전체 내용은 표 1.에 정리하였다.

### 2. 『纂圖方論脈訣集成』

『東醫寶鑑』에는 『纂圖方論脈訣集成』(이하 『纂圖脈』)도 인용되었는데, 이 경우도 인용표기를 ‘脈訣’로 하였다.

『纂圖脈』은 1581년 許浚이 저술하였는데, 高陽生の 『纂圖脈訣』을 발췌, 교정하여 만든 의서로 1661년에 개간하였다.<sup>5)</sup>

1) 이경옥, 이시형. 동의보감 해수문 16종 해수의 원문과 인용문헌에 관한 비교고찰. 대한한의학정보학회지. 2009. 15(2).

2) 문영옥, 송지청, 금경수. 『東醫寶鑑』 五藏六府門의 引用文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학정보학회지. 2010. 16(2).

3)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師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08.

4) 蔡仁植 編著. 東垣十種醫書, 脈訣.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13.

5)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韓國醫史文獻編].

『東醫寶鑑』의 『纂圖脈』 인용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2.1. 希范의 문장을 인용한 경우

『東醫寶鑑』에 『纂圖脈』 중 ‘希范曰’로 시작되는 문장이 ‘脈訣’이란 표기로 인용된 경우이다. 『東醫寶鑑』 「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凡人病脈 亦當病 方爲相應 如強健人脈病  
病人却有強健脈 長人脈短 短人脈長 肥人脈  
瘦 小人脈大 皆相反也

와 같은데, 이는 『纂圖脈』의

凡人病脈 亦當病 方爲相應 如強健人脈病  
病人却有強健脈 長人脈短 短人脈長 肥人脈  
瘦 小人脈大 皆是相反也<sup>6)</sup>

와 내용이 동일하다.

『東醫寶鑑』에는 『纂圖脈』 중 ‘希范曰’로 시작되는 문장이 총 5회 인용되었으며, 전체 내용은 표 2.에 정리하였다.

### 2.2. 表題를 인용한 경우

『東醫寶鑑』에 『纂圖脈』의 표제가 인용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東醫寶鑑』 「脈」문의

一息四至 號平和 更加一至 大無病 三遲  
二敗 冷危困 六數七極 熱生多 八脫九死 十  
歸墓 十一十二 絕魂瘥 三至爲遲 一二敗 兩  
息一至 死非怪

는 『纂圖脈』의 문장<sup>7)</sup>과 동일하다.

이와 같이 『纂圖脈』의 표제 중 『東醫寶鑑』에 인용된 경우는 총 17회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3.에 정리하였다.

한편 『東醫寶鑑』에 인용된 『纂圖脈』의 표제는 대부분 ‘希范’의 문장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東醫寶鑑』 「審病」에

【審病】 欲愈之病 目皆黃<sup>胃氣行也</sup> 眼胞忽陷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94. p.68.

6)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韓國醫學大系39卷.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350.

7)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韓國醫學大系39卷.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59.

定知亡<sup>五藏絶也</sup> 耳目口鼻 黑色起 入口十死 七難當<sup>腎乘胃也</sup> 面黃目青 酒亂頻 邪風在胃 衰其身<sup>木克土也</sup> 面黑目白 命門敗 困極入日 死來侵<sup>神去也</sup> 面色忽然 望之青 進之如黑 卒難當<sup>肝腎絶也</sup> 面赤目白 怕喘氣 待過十日 定存亡<sup>火克金也</sup> 黃黑白色 起入目 更兼口鼻 有災殃<sup>水乘脾也</sup> 面青目黃 中時死 餘候須看 兩日強<sup>木克土也</sup> 目無精光 齒齦黑 面白目黑 亦災殃<sup>肺腎絶也</sup> 口如魚口 不能合<sup>脾絶</sup> 氣出不返 命飛揚<sup>肝腎絶也</sup> 妄語錯亂 及不語 尸臭元知 壽不高<sup>心絶</sup> 人中盡滿 兼背青 三日須知 命必傾<sup>木克土也</sup> 兩頰顛赤 心病久 口張氣直 命難停<sup>脾肺絶也</sup> 足趺趾腫 膝如斗 十日須知 難保守<sup>脾絶</sup> 項筋舒展 定知殂<sup>腎脈絶也</sup> 掌內無紋 也不久<sup>心包絶也</sup> 脣青體冷 及遺尿<sup>膀胱絶也</sup> 背面飲食 四日期<sup>肝絶</sup> 手足爪甲 皆青黑 更過八日 定難醫<sup>肝腎絶也</sup> 脊痛腰重 反覆難 此是骨絶 五日看<sup>腎絶</sup> 體重尿赤 時不止 肉絶六日 便高拌<sup>脾絶</sup> 手足甲青 呼罵多 筋絶九日 定難過<sup>肝絶</sup> 髮直如麻 半日死<sup>小腸絶</sup> 尋衣語死 十知麼<sup>心絶</sup>

란 문장은 『纂圖脈』卷四 「察色觀病人生死候」에 나오는

欲愈之病 目皆黃<sup>胃氣行也</sup> 眼胞忽陷 定知亡<sup>五藏絶也</sup> 8) 耳目口鼻 黑色起 入口十死 七難當<sup>腎乘胃也</sup> 9) 面黃目青 酒亂頻 邪風在胃 衰其身<sup>木克土也</sup> 10) 面黑目白 命門敗 困極入日 死來侵<sup>神去也</sup> 11) 面色忽然 望之青 進之如黑 卒難當<sup>肝腎絶也</sup> 12) 面赤目白 怕喘氣 待過十日 定存亡<sup>火克金也</sup> 13) 面赤目青 象惡傷 榮衛不通 立須亡<sup>希范無此二句</sup> 14) 黃黑白色 起入目 更兼口鼻 有災殃

- 8)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韓國醫學大系39卷.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395.  
9)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韓國醫學大系39卷.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397.  
10)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韓國醫學大系39卷.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398.  
11)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韓國醫學大系39卷.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400.  
12)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韓國醫學大系39卷.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400.  
13)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韓國醫學大系39卷.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401.

水乘脾也<sup>15)</sup> 面青目黃 中時死 餘候須看 兩日強<sup>木克土也</sup> 16) 面無精光 如土色 不能食時 四日亡<sup>希范無此二句</sup> 17) 目無精光 齒齦黑 面白目黑 亦災殃<sup>肺腎絶也</sup> 18) 口如魚口 不能合<sup>脾絶</sup> 氣出不返 命飛揚<sup>肝腎絶也</sup> 19) 肩息直視 及脣焦 面腫蒼黑也 難逃<sup>20)</sup> 妄語錯亂 及不語 尸臭元知 壽不高<sup>心絶</sup> 21) 人中盡滿 兼背青 三日須知 命必傾<sup>木克土也</sup> 22) 兩頰顛赤 心病久 口張氣直 命難停<sup>脾肺絶也</sup> 23) 足趺趾腫 膝如斗 十日須知 難保守<sup>脾絶</sup> 24) 項筋舒展 定知殂<sup>腎脈絶也</sup> 掌內無紋 也不久<sup>心包絶也</sup> 25) 脣青體冷 及遺尿<sup>膀胱絶也</sup> 背面飲食 四日期<sup>肝絶</sup> 26) 手足爪甲 皆青黑 能過八日 定難醫<sup>肝腎絶也</sup> 27) 脊痛腰重 反覆難 此是骨絶 五日看<sup>腎絶</sup> 28) 體重尿赤 時不止 肉絶六日 便高拌<sup>脾絶</sup> 29) 手足甲青 呼罵多 筋絶九日 定難

- 14)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韓國醫學大系39卷.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402.  
15)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韓國醫學大系39卷.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403.  
16)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韓國醫學大系39卷.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404.  
17)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韓國醫學大系39卷.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404.  
18)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韓國醫學大系39卷.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404.  
19)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韓國醫學大系39卷.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406.  
20)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韓國醫學大系39卷.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405.  
21)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韓國醫學大系39卷.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406.  
22)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韓國醫學大系39卷.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407.  
23)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韓國醫學大系39卷.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407.  
24)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韓國醫學大系39卷.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408.  
25)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韓國醫學大系39卷.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409.  
26)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韓國醫學大系39卷.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409.  
27)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韓國醫學大系39卷.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410.  
28)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韓國醫學大系39卷.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410.  
29)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韓國醫學大系39卷.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411.

過<sub>肝絶</sub><sup>30)</sup> 髮直如麻 半日死<sub>小腸絶</sub> 尋衣語死 十知<sub>心絶</sub><sup>31)</sup>

와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 하지만 『東醫寶鑑』에 이 중에서 아래 두 문장이 인용되지 않았다.

面赤目青 象惡傷 榮衛不通 立須<sub>希范無此二句</sub>亡

面無精光 如土色 不能食時 四日<sub>希范無此二句</sub>亡

주목할 점은 문장 뒤에 ‘希范無此二句’로 설명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許浚이 『纂圖脈』의 希范의 글을 인용하여 표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希范의 글이 아닌 경우는 ‘希范無此二句’라는 주를 달아 구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東醫寶鑑』에는 『纂圖脈』의 표제로 사용된 ‘希范’의 문장이 ‘脈訣’이란 표기로 인용되었다고 판단된다.

단 『纂圖脈』의

肩息直視 及脣焦 面腫蒼黑也 難逃<sup>32)</sup>

문장은 ‘希范無此二句’ 설명이 없는데도 『東醫寶鑑』에 인용되지 않았다.

### 2.3. 潔古의 문장을 인용한 경우

『東醫寶鑑』에 『纂圖脈』 중 ‘潔古曰’로 시작되는 문장이 총 6회 인용되었다. 潔古는 張元素의 字인데, 『東醫寶鑑』 『臟腑』의

肝之餘氣 溢入於膽 聚而成精 由是內藏精而不泄 外視物而得明爲清淨之府 能通於眼目

은 『纂圖脈』 중 ‘希范曰’로 시작되는 문장

肝之餘氣 溢入於膽 聚而成精 由是內藏精而不泄 外視物而得名以爲清淨之府 能通於眼目<sup>33)</sup>

을 인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내용은 표 4.에 정리하였다.

### 3. 『脈訣』 또는 『纂圖脈』에서 詳考할 수 없는 경우

『東醫寶鑑』의 『脈訣』 인용문 중 崔嘉彦의 『脈訣』 또는 『纂圖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東醫寶鑑』 「口舌」의

左寸洪數 心熱口苦 右寸浮數 肺熱口辛 左關弦數 膽虛口苦 洪實則肝熱口酸 右關沈實 脾熱口甘 洪數則口瘡 或爲重舌木舌

문장은 상기 두 서적에서 詳考할 수 없었다. 단 위 문장은 『醫學正傳』 「口病·脈法」<sup>34)</sup>에 ‘脈經曰 左寸洪數 心熱口苦 右寸浮數 肺熱口辛 左關弦數而虛 膽虛口苦 甚洪而實 肝熱口酸 右關沈實 脾胃有實熱口甘 兼洪數者 口瘡 或爲重舌木舌’이라고 하였는데, 『脈經』에도 이런 文章은 없었다. 이와 같이 인용처를 詳考할 수 없는 경우는 총 9회이며, 전체 내용은 표 5.에 정리하였다.

## III. 考 察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1. 『東醫寶鑑』에 ‘脈訣’이란 표기로 인용된 文章은 총 72회이다.

2. 『東醫寶鑑』에 ‘脈訣’이란 표기로 인용된 文章 72회 중 35회는 宋代 崔嘉彦의 著書인 『脈訣』에서 인용한 경우이고, 5회는 許浚 본인의 著書인 『纂圖脈』 중 ‘希范曰’로 시작되는 문장에서 引用한 것이며, 17회는 『纂圖脈』의 표제를 인용한 것이고, 6회는 『纂圖脈』 중 ‘潔古曰’로 시작되는 문장에서 引用한 것이다. 9회는 『纂圖脈』이나 『脈訣』에서 詳考할 수 없었다.

3. 潔古는 張元素의 字로 脈學 관련 저서로는 『潔古老人注王叔和脈訣』이 있다.

4. 『纂圖脈』의 ‘希范曰’로 시작되는 문장 및 표제는 모두 希范의 서술내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5. 希范은 崔嘉彦의 字이다.

6. 『纂圖脈』에 인용된 ‘希范’은 崔嘉彦이 아니며, 『纂圖脈』의 著者 許浚은 ‘希范’을 ‘姓은 李이고 名은

30)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韓國醫學大系39卷.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411.

31)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韓國醫學大系39卷.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412.

32)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韓國醫學大系39卷.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405.

33)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韓國醫學大系39卷.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46.

34) 虞搏. 醫學正傳.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 p.274.

駟이며 宋人이다.’<sup>35)</sup>라고 하였다.

7. 李駟은 南宋의 醫學者로 字는 子野이며, 號는 唏范子로 『脈訣集解』를 저술한 인물<sup>36)</sup>이다.

문제는 許浚이 李駟의 號를 唏范子 혹은 唏范이 아닌 希范으로 기재했다는 사실이다. 즉 『東醫寶鑑』에서 『脈訣』을 인용하여 맥에 대한 서술을 하면서 崔嘉彦의 문장과 李駟의 문장을 ‘脈訣’이라는 동일 인용표기를 사용하였고, 아울러 張元素의 문장도 ‘脈訣’로 표기하여 인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崔嘉彦의 『脈訣』, 李駟의 『脈訣』, 張元素의 『脈訣』의 관계를 辭典類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中國醫籍通考<sup>37)</sup>

李駟의 『脈訣』 관련 書籍으로 『集解脈經』과 『脈經集解』를 제시하였다. 모두 佚失된 서적이며 언급한 서적의 기록 차이로 다른 명칭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동일서적으로 파악된다.

崔嘉彦의 『脈訣』 관련 서적으로 『崔眞人脈訣詳解』를 제시하였다. 모두 현존하고 있으며 전자는 『東垣十書』 중에 보인다. 또한 『脈訣四言學要』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崔嘉彦 『脈訣』을 清代 枉道純이 주석한 것이고, 『脈訣秘旨』도 제시하였는데 佚失되어 전해지지 않는다.

張元素의 『脈訣』 관련 서적으로 『潔古注叔和脈訣』을 제시하였다. 佚失되었으나 최근에 일본에서 발견되어 출간되었다.<sup>38)</sup>

### 2. 中國醫籍大辭典<sup>39)</sup>

35) 許浚. 纂圖方論脈訣集成, 韓國醫學大系39卷.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14.

36)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32.

37) 嚴世芸. 中國醫籍通考 卷1.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38) 鄭金生 主編. 海外回歸 中醫善本古籍叢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39) 中國醫籍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李駟의 『脈訣』과 張元素의 『脈訣』 관련 서적은 제시하지 않았다. 崔嘉彦의 『脈訣』 관련 서적으로 『脈訣四言學要』와 『脈學入問四言學要』를 제시하였는데, 전자는 清代 枉道純이 주석한 것이고, 후자는 明代 李言聞이 刪補하고 清代 吳煇가 注釋을 한 것이다.

### 3. 宋以前醫籍考<sup>40)</sup>

李駟의 『脈訣』만 제시하였는데, 『李唏范脈訣』, 『唏范脈訣』이라고도 하며 『王叔和脈訣』을 의미할 때도 있다.

『脈訣集解』도 李駟 撰으로 『集解脈訣』이라고도 한다.

## IV. 結 論

『東醫寶鑑』의 『脈訣』 인용문장 중 대다수는 崔嘉彦의 『脈訣』과 許浚 자신의 저서인 『纂圖脈』에서 인용된 것이다. 『纂圖脈』에서 인용된 문장은 대부분 ‘希范’이 언급한 標題 및 文章의 재인용이며, 아울러 ‘潔古’가 언급한 文章의 재인용인데, 許浚은 『纂圖脈』에서 宋代 醫人 李駟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그의 號인 唏范子 또는 唏范이 아닌 希范으로 인지하였다. 하지만 ‘希范’은 崔嘉彦의 號이고, 『脈訣集解』의 저자 李駟의 號는 ‘唏范’임에도 불구하고 ‘希范’으로 표기하였다.

辭典類 서적에서 언급하고 있는 『脈訣』 관련 도서들은 崔嘉彦의 『脈訣』, 李駟의 『脈訣』 또는 『脈訣集解』, 張元素의 『潔古老人注叔和脈訣』 등이 있었는데, 모두 약칭해서 『脈訣』이라 부를 수 있는 서적들이다.

許浚은 『東醫寶鑑』에 脈과 관련된 문장을 서술하면서 崔嘉彦의 『脈訣』, 李駟의 『脈訣』, 張元素의 『脈訣』 문장을 모두 인용하였는데, 인용표기는 ‘脈訣’ 하나만 사용하였다. 따라서 許浚이 李駟과 崔嘉彦의 號를 동일시하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두 서적을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脈訣’이란 인용표기는 최소한 張元素의 『潔古老人注王叔和脈訣』, 崔

40) 圖書爲人. 宋以前醫籍考. 北京. 學苑出版社. 2006.

嘉彦의 『脈訣』, 李嗣의 『脈訣集解』를 의미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 References

1. Heo J. Dongeuibogam, Korea Science & Technology History Collections Vol. 10~14. Seoul. Lyeogang Press. 1988.
2. Heo J. Chandobanglonmaekgyeoljipseong, Korea Medicine Collection Vol.39. Seoul. Lyeogang Press. 1994.
3. Chae IS edit. Dongwonsipjongeuiseo, Maekgyeol. Seoul. Daeseongmunhwa Co. 1983.
4. Wu T. Yixuezhengzhuan. Beijing. Zhongyigui Press. 2002.
5. Zheng JS. Zhongyishanbengujicongshu. Beijing. Renminweisheng Press.. 2002.
6. Yan SY. Zhongguoyijitongkao Vol 1. Shanghai. Shanghaiyanongyixueyuan Press. 1990.
7. Zhongguoyijidacidianbianzhan Committee. Zhongguoyijidacidian. Shanghai. Shanghaikeji Press. 2002.
8. Tushuweiren. Yijikao before Song Dynasty. Beijing. Xuayuan Press. 2006.
9. Lee JW, Lee SH. Consideration of Comparing the Original Texts with Quotations in 16 Kinds of Cough Part in Haesu Chapter of Donguibogam.. J, KMI. 2009. 15(2).
10. Moon YO, Song JC, Keum KS. A Review on quotations of Formulae of Chapters related to Five Viscera and Six Bowls in 『Dongeuibogam』. J, KMI. 2010. 16(2).

Table 1. Comparison I between contents of 『Donguibogam』 and 『Maijue』 written by Cui Jiayan(崔嘉彦)

번호	『東醫寶鑑』原文	崔嘉彦『脈訣』原文	비고
1	「精」(脈訣曰)遺精白濁 當驗於尺 結朮動緊 二證之的	ㄷ동	
2	「氣」脈訣曰 下手脈沈 便知是氣 沈極則伏 瀆弱難治 其或沈滑 氣兼痰飲 ○又曰 沈弦細動 皆氣痛證 心痛在寸 腹痛在關 下部在尺 脈象顯然	下手脈沈 便知是氣 沈極則伏 瀆弱難治 其或沈滑 氣兼痰飲 沈弦細動 皆氣痛證 心痛在寸 腹痛在關 下部在尺 脈象顯然	
3	「神」癩癩之脈 浮洪大長 滑大堅實 痰蓄心狂	ㄷ동	
4	「神」心中驚悸 脈必結代 飲食之悸 沈伏動滑	ㄷ동	
5	「血」(脈訣曰)諸證失血 皆見芤脈 脈貴沈細 <b>浮大難治</b>	諸證失血 皆見芤脈 <b>隨其上下 以驗所出 大凡失血 脈貴沈細 設見浮大 後必難治</b>	
6	「津液」(脈訣曰)汗脈浮虛 或澁或濡 軟散洪大 渴飲無餘	ㄷ동	
7	「痰飲」偏弦爲飲 或沈弦滑 或結或伏 痰飲中節	ㄷ동	
8	「小便」遺精白濁 當驗於尺 結朮動緊 二證之的	ㄷ동	
9	「小便」便血則芤 數則赤黃 實脈癰閉 熱在膀胱	ㄷ동	
10	「大便」無積不痢 脈宜滑大 浮弦急死 沈細無害	ㄷ동	
11	「頭」頭痛陽弦 浮風緊寒 風熱洪數 濕細而堅 氣虛頭痛 雖弦必瀆 痰厥則滑 腎厥堅實	ㄷ동	
12	「頭」風寒暑濕 氣鬱生涎 下虛上實 皆暈而眩 風浮寒緊 濕細暑虛 涎弦而滑 虛脈則無	ㄷ동	
13	「胸」沈弦細動 <b>皆是痛證</b> 心痛在寸 腹痛在關 下部在尺 脈象顯然	沈弦細動 <b>皆氣痛證</b> 心痛在寸 腹痛在關 下部在尺 脈象顯然	
14	「胸」胸痞脈滑 爲有痰結 弦伏亦痞 澁則氣劣	ㄷ동	
15	「足」脚氣之脈 其狀有四 浮弦爲風 濡弱濕氣 遲瀆因寒 洪數熱鬱	ㄷ동	
16	「足」尺脈虛弱 緩瀆而緊 病爲足痛 或是痿病	ㄷ동	
17	「前陰」疝脈弦急 積聚在裏 牢急者生 弱急者死 沈遲浮瀆 疝瘕寒痛 痛甚則伏 或細或動	疝脈弦急 積聚在裏 牢急者生 弱急者死 沈遲浮瀆 疝瘕寒痛 痛甚則伏 或細或動	
18	「風」中風脈浮 滑兼痰氣 其或沈滑 勿以風治 或浮或沈 而微而虛 扶危溫痰 風未可疎	ㄷ동	
19	「風」風寒濕氣 合而爲痺 浮瀆而緊 三脈乃備	風寒濕氣 合而爲痺 浮瀆而緊 三脈乃備	
20	陰陽俱盛 病熱之極 浮之而滑 沈之散澁	ㄷ동	
21	「暑」暑傷於氣 所以脈虛 弦細芤遲 體狀無餘	ㄷ동	
22	「濕」或澁或細 或濡或緩 是皆中濕 可得而斷	<b>或瀆</b> 或細 或濡或緩 是皆中濕 可得而斷	
23	「火」骨蒸勞熱 脈數而虛 熱而澁小 必損其軀 加汗加咳 非藥 <b>可治</b>	骨蒸勞熱 脈數而虛 熱而澁小 必損其軀 加汗加咳 非藥 <b>可陰</b>	
24	「內傷」氣口緊盛 爲傷於食 食不消化 浮滑而疾	ㄷ동	
25	「霍亂」滑數爲嘔 代者霍亂 微滑者生 澁數凶斷	ㄷ동	
26	「咳嗽」咳嗽所因 浮風緊寒 數熱細濕 房勞瀆難 右關濡者 飲食傷脾 左關弦短 疲極肝衰 浮短肺傷 法當咳嗽 五藏之嗽 各視本部 浮緊虛寒 沈數實熱 洪滑多痰 弦澁 <b>少血</b> 形盛脈細 不足以息 沈小伏匿 皆是死脈 惟有浮大 而嗽者生 外證內脈 參考秤停	咳嗽所因 浮風緊寒 數熱細濕 房勞瀆難 右關濡者 飲食傷脾 左關弦短 疲極肝衰 浮短肺傷 法當咳嗽 五藏之嗽 各視本部 浮緊虛寒 沈數實熱 洪滑多痰 弦 <b>瀆小血</b> 形盛脈細 不足以息 沈小伏匿 皆是死脈 惟有浮大 而嗽者生 外證內脈 參考秤停	
27	「咳嗽」寸數虛澁 肺痿之形	數虛瀆 肺痿之形	
28	「積聚」五藏爲積 六府爲聚 積在本位 聚無定處 <b>駛緊</b> 浮牢 小而沈實 或結或伏 爲聚爲積 實強者生 沈小者死	五藏爲積 六府爲聚 積在本位 聚無定處 <b>駛緊</b> 浮牢 小而沈實 或結或伏 爲聚爲積 實強者生 沈小者死	
29	「黃疸」五疸實熱 脈必洪數 其或微澁 證屬虛弱	五疸實熱 脈必洪數 其或微瀆 證屬虛弱	
30	「瘧瘧」瘧脈自弦 弦遲多寒 弦數多熱 隨時變遷	ㄷ동	

31	「溫疫」陰陽俱盛 病熱之極 浮之而滑 沈之散澁 惟有溫病 脈散諸經 各隨所在 不可指名	陰陽俱盛 病熱之極 浮之而滑 沈之散澁 惟有溫病 脈散諸經 各隨所在 不可指名
32	「癰疽上」癰疽浮數 惡寒發熱 若有痛處 癰疽所發 脈數發熱 而疼者陽 不數不熱 不疼陰瘡 發癰之脈 弦洪相搏 沈細而直 肺肝俱數	좌동
33	「癰疽下」腸癰難知 脈滑可推 數而下熱 腸癰何疑 遲緊未膿 下以平之 洪數膿成 不下為宜	좌동
34	「婦人」男女之別 以左右取 左疾為男 右疾為女 沈實在左 浮大在右 右女左男 可以豫則	男女之別 以左右取 左疾為男 右疾為女 沈實在左 浮大在右 右女左男 可以預剖
35	「婦人」半產漏下 革脈主之 弱則血耗 立見傾危	半產漏下 革脈主之 弱即血耗 立見傾危

Table 2. Comparison II between contents of 「Dongeuibogam」 and 『Chandobanglonmaegyeoljipseong』 related to Xidan(希范)

번호	『東醫寶鑑』原文	『纂圖方論脈訣集成』原文	비고
1	「精」又曰 瀆脈 為精血不足之候 丈夫脈瀆 號傷精	希范曰 瀆 為精血不足之候 若獨於尺中 則為死候 與代同也 丈夫脈瀆 號傷精	
2	「言語」語過多 成咳嗽 或失音	言語過多 則肺氣有傷 肺傷則必 成咳嗽	
3	「脈」凡人病脈 亦當病 方為相應 如強健人脈病 病人却有強健脈 長人脈短 短人脈長 肥人脈瘦 小人脈大 皆相反也	凡人病脈 亦當病 方為相應 如強健人脈病 病人却有強健脈 長人脈短 短人脈長 肥人脈瘦 小人脈大 皆是相反也	
4	「脈」[人參黃芪湯] 滋養血氣 調和榮衛 和順三焦 通行血脈 治雜病脈代 陳皮二錢 黃芪 白芍藥 桔梗 天門冬 半夏 當歸 各一錢 人參 白茯苓 熟地黃 地骨皮 甘草 各五分 右剉 作一貼 薑七片 煎服	潔古曰 不因病而羸瘦 脈有止曰代 代真死脈也 若暴損氣血 以至元氣不續而止 可治以人參黃芪湯 治雜病脈代 陳皮 <sub>去白</sub> 二錢 黃芪 白芍藥 桔梗 天門冬 半夏 <sub>製</sub> 當歸 各一錢 人參 白茯苓 熟地黃 地骨皮 甘草 <sub>製</sub> 各半兩 咬咀 薑七片 水煎一兩 去滓 食前服 滋養血氣 調和榮衛 和順三焦 通行血脈	
5	「脈」瀆脈 細而遲 往來難時一止 然三秋診得 瀆為秋正脈 右手寸口 浮短而瀆 為肺正脈 非病脈也	瀆 細而遲 往來難時一止 為精血不足 與代脈相似 然三秋診得 瀆為秋正脈 右手寸口 浮短而瀆 而有胃氣 為肺正脈 既非死脈 亦非病脈	

Table 3. Comparison III between contents of 「Dongeuibogam」 and titles of 『Chandobanglonmaegyeoljipseong』

번호	『東醫寶鑑』原文	『纂圖方論脈訣集成』原文	비고
1	「言語」手足甲青 呼罵多 筋絕九日 定難過		표제
2	「胞」(脈訣曰)崩中日久 為白帶 漏下多時 骨木枯	崩中 <sub>婦人</sub> 日久 為白帶 漏下多時 骨木枯	표제
3	「大便」下痢微小 却為生脈 大浮洪 無差日		표제
4	「頭」頭痛短澁 應須死 浮滑風痰 必易除		표제
5	「頭」陽脈弦者 頭痛 無疑	陽弦者 頭痛 無疑	표제
6	「眼」「天地運氣」眼胞忽陷 定知亡		표제
7	「胸」「腹」心腹痛 脈沈細 宜浮大弦 長命必殞		표제
8	「脈」一息四至 號平和 更加一至 大無病 三遲二敗 冷危困 六數七極 熱生多 八脫九死 十歸墓 十一十二 絕魂癯 三至為遲 一二敗 兩息一至 死非怪		표제
9	「後陰」(脈訣曰)積氣生於脾藏 傍大腸疼痛 陣難	積氣生於脾藏 傍大腸疼痛 陣難 當只宜稍瀉 三焦火 莫漫多 方立紀綱	표제
10	「審病」欲愈之病 目皆黃 <sub>胃氣行也</sub> 眼胞忽陷 定知亡 <sub>五藏絕也</sub> 耳目口鼻 黑色起 入口十死 七難當 <sub>醫藥胃也</sub> 面黃目青 酒亂頻 邪風在胃 衰其身 <sub>木克土也</sub> 面黑目白 命門敗 困極入日 死來侵 <sub>神去也</sub> 面色忽然	欲愈之病 目皆黃 <sub>胃氣行也</sub> 眼胞忽陷 定知亡 <sub>五藏絕也</sub> 耳目口鼻 黑色起 入口十死 七難當 <sub>醫藥胃也</sub> 面黃目青 酒亂頻 邪風在胃 衰其身 <sub>木克土也</sub> 面黑目白 命門敗 困極入日 死來侵 <sub>神去也</sub> 面色忽	표제



<p>望之青 進之如黑 卒難當<sup>肝腎絕也</sup> 面赤目白 怕喘 氣 待過十日 定存亡<sup>火克金也</sup> 黃黑白色 起入目 更 兼口鼻 有災殃<sup>水乘脾也</sup> 面青目黃 中時死 餘候須 看 兩日強<sup>木克土也</sup> 目無精光 齒齦黑 面白目黑 亦 災殃<sup>肺腎絕也</sup> 口如魚口 不能合<sup>脾絕</sup> 氣出不返 命飛 揚<sup>肝腎絕也</sup> 妄語錯亂 及不語 尸臭元知 壽不高<sup>心絕</sup> 人中盡滿 兼背青 三日須知 命必傾<sup>木克土也</sup> 兩頰 顛赤 心病久 口張氣直 命難停<sup>脾肺絕也</sup> 足跖趾腫 膝如斗 十日須知 難保守<sup>脾絕</sup> 項筋舒展 定知殞<sup>腎</sup> 脈絕也 背面飲食 四日期<sup>肝絕</sup> 手足爪甲 皆青黑 更 過八日 定難醫<sup>肝腎絕也</sup> 脊痛腰重 反覆難 此是骨 絕 五日看<sup>腎絕</sup> 體重尿赤 時不止 肉絕六日 便高 拌<sup>脾絕</sup> 手足甲青 呼罵多 筋絕九日 定難過<sup>肝絕</sup> 髮 直如麻 半日死<sup>小腸絕</sup> 尋衣語死 十知麼<sup>心絕</sup></p>	<p>然 望之青 進之如黑 卒難當<sup>肝腎絕也</sup> 面赤目白 怕喘氣 待過十日 定存亡<sup>火克金也</sup> 面赤目青 象 惡傷 榮衛不通 立須亡<sup>著龍無此二句</sup> 黃黑白色 起 入目 更兼口鼻 有災殃<sup>水乘脾也</sup> 面青目黃 中時 死 餘候須看 兩日強<sup>木克土也</sup> 面無精光 如土色 不能食時 四日亡<sup>著龍無此二句</sup> 目無精光 齒齦黑 面白目黑 亦災殃<sup>肺腎絕也</sup> 口如魚口 不能合<sup>脾絕</sup> 氣出不返 命飛揚<sup>肝腎絕也</sup> 肩息直視 及骨焦 面 腫蒼黑也 難逃 妄語錯亂 及不語 尸臭元知 壽 不高<sup>心絕</sup> 人中盡滿 兼背青 三日須知 命必傾<sup>木</sup> 克土也 兩頰顛赤 心病久 口張氣直 命難停<sup>脾肺絕</sup> 項筋舒展 定知殞<sup>腎脈絕也</sup> 掌內無紋 也不久<sup>心包絕也</sup> 骨青體冷 及遺尿<sup>膀胱絕也</sup> 背面飲食 四日期<sup>肝絕</sup> 手 足爪甲 皆青黑 能過八日 定難醫<sup>肝腎絕也</sup> 脊痛 腰重 反覆難 此是骨絕 五日看<sup>腎絕</sup> 體重尿赤 時不止 肉絕六日 便高拌<sup>脾絕</sup> 手足甲青 呼罵多 筋絕九日 定難過<sup>肝絕</sup> 髮直如麻 半日死<sup>小腸絕</sup> 尋衣語死 十知麼<sup>心絕</sup></p>	
11 「風」 中風口噤 遲浮吉 急實大數 三魂孤		표제
12 「寒上」 熱病須得 脈浮洪 細小徒費 用神功 汗後 脈靜 當便 <del>差</del> 喘熱脈亂 命應終	熱病須得 脈浮洪 細小徒費 用神功 汗後脈靜 當便 <del>差</del> 喘熱脈亂 命應終	표제
13 「寒上」 欲愈之病 目皆黃 眼胞忽陷 定知亡		표제
14 「消渴」 消渴脈數大者 活 細小浮短者 死	消渴脈數大者 活 虛小病甚 厄難脫	표제
15 「脈法」 欲 <del>日</del> 欲產之婦 脈離經 沈細而滑也 同名 夜半覺痛 應分誕來日午後 定知生	欲產之婦 脈離經 沈細而滑也 同名夜半覺痛 應分誕來日午後 定知生	표제
16 「婦人」 新產之脈 緩滑吉 實大弦急 死來侵 又云 沈細附骨 不絕生	新產之脈 緩滑吉 實大弦急 死來侵 若得重沈 小者吉 忽若堅牢 命不停 寸口溢疾 不調死 沈 細附骨 不絕生 審看此候 分明記 長須念取 向 心經	표제

Table 4. Contents comparison IV between 「Dongeuibogam」 and 「Chandobanglonmaegyeoljipseong」 related to Jiegu(潔古)

번호	『東醫寶鑑』原文	『纂圖方論脈訣集成』原文	비고
1	「神」[黃連瀉心湯] 治狂疾 黃芩二兩 黃連 生地 黃 知母 各一兩 甘草五錢 右剉 每五錢 水煎服	潔古曰 此大陽少陽相合 主伏陽上衝化爲狂病 宜以黃連瀉心湯治之方 黃芩二兩 黃連 生地 黃 知母 各一兩 甘草五錢 咬咀 每服半兩 水 一盞半煎服	潔古
2	「言語」(脈訣曰)呻吟者 困重形於外也		潔古
3	「臟腑」 肝之餘氣 溢入於膽 聚而成精 由是內藏 精而不泄 外視物而得明爲清淨之府 能通於眼目	肝之餘氣 溢入於膽 聚而成精 由是內藏 精而 不泄 外視物而得明爲清淨之府 能通於眼目	潔古
4	「眼」 人年老而目昏者 血氣衰而肝葉薄 膽汁減 而目乃昏矣	人年老而目昏者 謂血氣衰而肝葉薄 膽汁減而 目乃昏	潔古
5	「脈」 傷寒脈結代 心動悸 灸甘草湯主之	傷寒代者 灸甘草湯	潔古
6	「脈」 若暴損氣血 以至元氣不續 而止可治之 以 人參黃芪湯	若暴損氣血 以至元氣不續 而止可治 以人參 黃芪湯	潔古

Table 5. Contents of 『Dongeuibogam』 that couldn't be found related to 『Maijue』 quotation

번호	『東醫寶鑑』原文	비고
1	「精」又曰 瀯爲精竭血枯	『醫學入門』「診脈·諸脈相兼主病」에 '瀯爲不足傷精血'에 대한說明으로 '與氣口相應 則精竭血枯'가 있어 類似
2	「神」又曰 大堅疾者 癲狂	『醫學正傳』「癲狂·癱瘓·脈法」에 '脈大堅疾者 癲狂'으로 되어 있어 類似
3	「口舌」左寸洪數 心熱口苦 右寸浮數 肺熱口辛 左關弦數 膽虛口苦 洪實則肝熱口酸 右關沈實 脾熱口甘 洪數則口瘡 或爲重舌木舌	『醫學正傳』「口病·脈法」에 '脈經曰 左寸洪數 心熱口苦 右寸浮數 肺熱口辛 左關弦數而虛 膽虛口苦 甚洪而實 肝熱口酸 右關沈實 脾胃有實熱口甘 兼洪數者 口瘡 或爲重舌木舌'이라고 하였는데, 『脈經』에도 이런 文章이 없음
4	「寒」上 緊脈爲傷寒	『醫學入門』「診脈·諸脈相兼主病」에 '浮而有力則爲風'에 대한說明으로 '浮緊 則爲傷寒'이 있어 類似
5	「濕」濕熱之脈 緩大	詳考할 수 없음
6	「濕」脈浮而緩 濕在表也 脈沈而緩 濕在裏也	『醫學正傳』「濕證·脈法」에 同一한 文章이 있음
7	「火」火脈洪數 虛則浮	詳考할 수 없음
8	「內傷」內傷勞役 豁大不禁 若損胃氣 隱而難尋 內傷飲食 滑疾浮沈	『萬病回春』「內傷·脈」에 同一한 文章이 있음
9	「嘔吐」脈滑 爲嘔吐	詳考할 수 없음